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간호의 새로운 가치 창출 새 미래 열자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주력

간호법 제정 위해 총력 ... 100만 서명 달성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년간 간호 관련 법령 개정활동에 힘써왔다. 국민의 간호요구도 상승, 간호사 교육수준과 환자결과 향상 등을 근거로 꾸준히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다.

그 결과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간호교육의 4년 학제 일원화를 이뤄냈다. 또한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을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특히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해 유망간호사의 재취업을 돕고,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지역 내 중소병원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별·의료기관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잘못된 관행은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안전에 위협하는 요소이다.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기 전에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이 간호가 새롭게 가져야 할 가치이다.

이제 한국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큰 사명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마쳤다. 간호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주력

후쿠이 토시코 일본간호협회장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사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폐렴이나 심뇌혈관질환 등은 증가하고 약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질병구조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건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병원안결형에서 지역안결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람들이 어떠한 건강상태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간호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고, 의료와 생활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출산, 고령화, 재택의료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로 간호사의 역할을 넓혀 지역 전체를 내다보는 간호를 실현해야 한다.

일본간호협회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사명 아래 간호사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교육을 통한 간호전문성 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 간호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간호사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택시설의 간호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포괄적인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모든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간호사 한 명 한 명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삶을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간호 전문성 강화 및 표준화 힘써

간호에는 국경 없어 ... 다른 나라와 적극 협력

우 신주안 중국간호협회장

중국의 보건 의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고 영아 사망률 및 모성사망률이 감소했으며, 운동실천 등 생활습관은 좋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됐고, 생애주기애 따른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도 현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령인구가 2억명을 넘어 전 인구의 17.4%에 달하며,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염병 이외에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이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를 돌볼 때까지 낳을 수 있도록 출산정책도 달라져 출산 관련 간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380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67% 정도로 교육수준도 높아졌다.

중국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서비스 질 향상, 간호사업 활성화, 간호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간호혁신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학교교육,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배움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연수코스를 운영하고, 매년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호의 표준화를 위해 간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여러 형태의 간호를 도모하고 있다. 간호서비스를 병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건강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간호에는 국경이 없다. 하나의 운영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에 3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의 간호현안과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했으며,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고 우정을 나눴다.



간호실무지원, 간호교육, 노인 간호, 조직관리 및 리더십 등 4개 주제로 특별세션이 열렸다.

3개국 간호사 하나 된 화합의 장
간호 교육-연구-실무 교류하며 벤치마킹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간호사들은 각국의 간호현황과 간호실무·교육·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국의 연구논문 구두발표 37편과 포스터발표 118편이 진행됐다. 한국 참가자들은 연구논문 9편을 구두로, 16편을 포스터로 발표했다.

간호사들은 3개국의 간호발전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노유미 드림노인복지센터장은 "각국의 간호 트렌드가 고령화와 커뮤니티케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했고,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에 하이팅 국제의료복지대학 부교수는 "각국의 간호발전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아라키 토모코 동북문화대학 교수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3개국의 공통적인 과제와 관심사를 확인하는 기회도 됐다.

김은실 강동성심병원 수간호사는 "고령화, 저

출산 등 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 한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임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이 모여 풍성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자극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카코 우시다 쇼난의료대학 교수는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차오 주오중 중국간호협회 저널 편집장은 "발표 주제들이 모두 흥미로웠으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3개국 간호사들은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친목을 다지며 하나가 됐다.

박상요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는 "한·중·일 간호사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다른 나라의 상황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타나카 히토미 도쿄대 의대 조교수는 "간호학술대회는 한·중·일 간호사들이 화합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3개국이 탄탄한 네트워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첸 밈타오 귀주성 중의의학원 부속 의료원 간호



3개국 간호사들의 연구논문 37편이 구두로, 118편이 포스터로 발표됐다. 사진은 포스터 발표장 모습.



사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통해 최신 간호이슈를 업데이트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4개 주제 특별세션 열려
한국의 간호현황 및 미래 가치 공유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에서는 간호실무지원, 간호교육, 노인간호, 조직관리 및 리더십 등 4개 주제로 특별세션이 열렸다.

노인간호 세션에서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간호교육 세션에서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연자로 참여했다. 간호실무지원 세션에서는 안옥희 전북간호사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연자로 나섰다. 조직관리 및 리더십 세션에서는 박경숙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연자로 발표했다.

'한국의 노인간호 및 관련 정책' 주제로 발표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장)은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커뮤니티케어 등의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비판적 사고와 전문직 자아개념, 돌봄' 주제로 발표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이사(한양대 간호학부장)는 "간호교육은 긍정적 전문직 자아개념 성취를 목표로 하면서, 돌봄에 대한 이해와 간호의 철

학적 개념을 확고하게 교육해야 한다"면서 "근거기반간호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와 미래 간호' 주제로 발표한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은 간호업무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인공지능과 기술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 대 인간의 감성터치와 직접간호가 갖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중환실에서 간호행정과 리더십: 슈퍼리더십을 활용한 간호행정 시스템 구축 활동' 주제로 발표한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이사(건국대병원 사회사업팀장)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매달 공지하고 간호행정업무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이직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원원은 직원 만족 향상 활동을 통해 간호의 질을 높임으로써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